

植民地下의 朝鮮國際收支와 資本輸出入(1910—1945) (其 I)

安 秉 直

目 次	
I. 序	3. 貿易外收支에서 본 資本輸出入
II. 朝鮮經濟과 日本資本	4. 特殊輸出入에서 본 資本輸出入
1. 日本資本의 意味	IV. 日本資本의 投資形態
2. 日本資本의 輸入經路	1. 第 1 段階 1910~1918
3. 朝鮮經濟의 資金關係	2. 第 2 段階 1919~1930
III. 貿易 및 貿易外收支에서 본 日本資本	3. 第 3 段階 1931~1945
1. 貿易에서 본 資本輸出入	V. 日本資本輸出入의 總評價
2. 金銀移動에서 본 資本輸出入 (以上 本號掲載)	1. 日本資料에 의한 評價
	2. 朝鮮資料에 의한 評價
	3. 結 語

I. 序

韓國의 資本主義化 내지 韓國의 近代化는 日本植民支配下에서 遂行되었다. 이것은 所謂 韓國의 資本主義가 移植資本主義 내지 植民地資本主義에서부터 發展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876年 韓國의 近代的 開港以來 當時 朝鮮에 侵入한 日本商業資本은 朝鮮封建社會를 서서히 解體시키기 시작하였다. 初期 朝鮮에 侵入한 日本의 商業資本은 資本으로서 自己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朝鮮封建社會下의 封建的 大土地所有와 이 土地에 強權的으로 人間을 緊縛시켜 왔던 身分的 差別制度를 서서히 解體시키면서 自由로운 商品의 等價交換의 原理를 反映하는 社會制度 즉 自由와 平等의 原理를 樹立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近代化過程에 劃期的인 두가지 事件, 즉 封建的 大土地所有와 身分制의 差別制度를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나섰던 저 有名한 甲午의 農民戰爭과 위로부터의 資本家의 革命을 試圖하였던 金玉均의 甲申政變이 모두 開港以來 朝鮮에 侵入한 日本商業資本의 歷史的 產物임을 否定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資本主義의 性格을 移植資本主義 내지 植民地의 資本主義로 規定지어 놓은 外國資本 가운데서 開港으로부터 1910年을 前後한 韓國資本主義의 本格的 展開에 이르기

까지 流入된 日本商業資本은 既存 封建社會에 커다란 衝擊을 준 것이기는 하나, 그 以後의 資本主義發展史上에 차지하는 그의 比重은 극히 微微한 것이었다. 1905 年에 斷行된 韓國의 貨幣改革 및 財政制度改革, 그리고 1905 年부터 1918 年에 걸쳐 遂行된 土地調查事業 等に 있어서의 日本國家資本과 이에 隨伴된 日本商業資本 및 高利貸資本, 1920 年 以後에 展開된 日本會社資本, 그리고 1930 年 以後에 流入된 日本獨占資本은 韓國資本主義發展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의 性格을 移植資本主義 내지 植民地의 資本主義로 規定하는데 決定的 役割을 하였다. 하기가 韓國의 資本主義의 發展을 이와같이 全的으로 日本資本 내지는 日本資本主義의 役割에 歸屬시키는 見解에 對하여 反論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두가지 方向에서 提起된다.

첫째는 朝鮮封建社會에 있어서도 이미 1876 年의 近代的 開港以前에 資本主義의 萌芽가 發展하고 있었다는 見解이다. 朝鮮封建社會에 있어서도 壬辰倭亂以後에 封建的 諸制度가 서서히 崩壞되면서 農村에 있어서 封建的 隸屬으로부터 解放된 自營農이 廣範하게 展開되고 그중에는 商品生産을 目的으로 하는 「經營型」地主가 發達하고⁽¹⁾ 또 客主 旅閩을 中心으로 하는 商人資本 및 高利貸資本이 相當히 發展하고 있었다는 事實이 차차 밝혀지고 있다. 朝鮮封建社會의 末期에 廣範하게 展開되었던 自營農이나 「經營型」地主의 發生에 관한 研究는 아직도 그들의 歷史的 性格을 明白히 할 만큼 充分히 檢討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할 지라도 朝鮮封建社會末期의 如斯한 霧圍氣속에서 대뉴팩처까지도 發展되지 않았겠으나 하는 것을 假定할 수 있는 充分한 論據를 提示해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見解는 日本植民統治下의 韓國近代史에 대한 態度 즉 韓國에 있어서 近代的 歷史學의 成立으로부터 1950 年 6·25 事變에 이르기까지 韓國歷史學界를 支配하여 왔던 見解, 말하자면 朝鮮封建社會內部에서는 전혀 近代化的 芽가 發芽할 수 없었고 韓國의 資本主義化는 全的으로 日本資本主義에 의한 外部的 刺戟과 植民地의 支配에 의해서만 遂行될 수 있었다는 態度를 克服하고자 하는 現今 歷史學界의 自主的 態度的 表明인 것이다. 이는 훌륭한 見解이며 우리나라의 歷史學徒가 指向할 바의 것이기는 하나, 上述한 朝鮮封建社會內部的 諸現象이 封建社會末期의 現象이므로 그것이 그 이후 韓國資本主義 發展過程에 있어서 主體的 役割을 擔當할만큼 充分히 成熟되어 있지는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日本植民統治下의 會社資本構成을 보면 韓國人資本은 10%內外에 不過하였으며 그중에서 大企業은 두셋을 헤아릴 程度고 또 그들의 資本系統도 朝鮮封建社會의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日帝

(1) 金容燮氏의 『量案의 研究 上·下』 『續·量案의 研究 上·下』 및 其他 論文에서 이러한 見解가 披瀝되어 있다.

植民支配下에서 새로이 誕生된 것들이었다.⁽²⁾

둘째는 1945年 8·15 解放 以前 朝鮮에 있어서 產業資本의 發展이 없었기 때문에 韓國의 資本主義的 發展은 1945年부터 시작한다는 見解이다.⁽³⁾ 아닌게 아니라 日本植民地時代에 朝鮮에 進出한 日本資本中에는 商業資本이 많았고 특히 1920年以前에는 商業資本이 支配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進出한 產業資本도 生産過程에 있어서보다 流通過程에서 보다 많은 利潤을 獲得하였으며 利潤獲得方法도 商人資本의 性格이 濃厚하였다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1920年以後에 朝鮮에 進出한 日本產業資本이 아무리 商業資本의 특히 商人資本의 性格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朝鮮內에 있어서의 生産過程의 基礎에 立脚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1930年以後에 進出한 日本資本은 日本獨占資本이었던 것이다. 日本植民地時代에 朝鮮에 進出한 日本資本의 性格을 時代的 性格轉換의 區別없이 一律的으로 商業資本 내지 商人資本으로 規定하려는 것은 朝鮮에 進出한 日本資本이 植民地的 特殊條件위에서 가질 수 있었던 하나의 屬性을 그것의 本質로 誤解한 것이며, 大資本이 아니었기에 日本資本에 編入될 수도 없었고, 無產者도 아니었기에 世界的 勞動隊列에도 參與할 수 없었던, 商業資本에 의하여 끊임없이 收奪당할 運命에 처한 作業場內에 密閉된 小所有者의 가련한 憎惡에 不過하다.

그러나 韓國의 資本主義化가 全的으로 日本資本에 의하여 遂行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一國民經濟로서 韓國의 自主的 資本主義化가 可能하였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韓國의 資本主義化는 日本資本主義의 一植民地로서 遂行되었던 것이며, 植民地經濟는 하나의 獨立的 國民經濟로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韓國의 資本主義化는 日本資本主義의 外延的 擴大過程上에서 遂行되었던 것이며 日本資本主義와의 公同한 紐帶속에서, 즉 그것의 굴레속에서만 可能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두개의 經濟를 連結하는 紐帶, 즉 굴레는 무엇인가? 두개의 經濟를 連結하는 無數한 紐帶중에서 이를 集約的으로 表現하는 것은 資本依存關係일 것이다. 이 資本關係란 日本資本主義가 朝鮮의 政治 및 經濟를 支配하기 위한 日本資本의 流入과 이를 基礎로 收奪한 剩餘價値의 流出을 의미한다. 이러한 植民地的 支配의 成立을 위해서는 두가지 條件이 必要하다.

(2) 『亞細亞研究』 Vol. VI, No. I 所載, 趙璣濬 「韓國民族資本에 關한 研究」參照. 氏는 1967年 12月 8~9 兩日間에 걸쳐 開催된 「韓國史의 時代區分」題下의 韓國經濟史 討論大會에서 이러한 見解가 韓國近代社會의 斷絶說을 招來한다고 하여 從前의 見解를 否定하고 있으나 本論文이 이 大會以前에 作成된 것이므로 이것을 修正하지 않았다.

(3) 이 見解에 대해서는 體系的 論說이 아직 없으나 近來 사주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으므로 이 見解를 一旦 否定해 두어야 한다.

첫째, 日本資本의 進出에 의한 韓國經濟의 支配이다. 日本資本의 韓國支配는 土地 및 鑛山을 中心으로 하는 自然資源의 支配, 各 產業에 걸친 會社資本의 支配 및 財政 金融의 支配 등이었다. 이들중 가장 重要한 것은 金融 및 會社資本의 支配이며, 이를 위하여 朝鮮人의 資本家로서의 成長을 積極 抑制하였다.⁽⁴⁾ 물론 土地所有에 있어서나 金融 및 會社資本에 있어서의 朝鮮人의 進出을 全적으로 排除한 것은 아니지만 買辦的 資本家의 進出을 약간 許容하였을 뿐 朝鮮內의 資本을 거의 日本人의 所有로 하였다. 이것은 端的으로 植民地的 支配와 被支配가 近代社會에 있어서의 世界人類의 階級的 分裂, 즉 資本과 勞動에로의 分裂과 同一한 範疇의 것이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나, 이 階級的 分裂은 同時에 民族的 分裂을 內包하고 있다는 點에서 보다 複雜한 樣相을 띠게 되었다. 近代 市民社會의 存立이 그 社會를 構成하는 構成員의 階級的 分裂을 土臺로 하여서만 可能한 것과 마찬가지로 植民地的 關係의 存續도 이러한 두 民族의 階級的 分裂下에서만 可能하였던 것이다.

둘째, 資本關係에 있어서 持續的인 日本에의 依存性的 強化이다. 植民地와 植民國간에 資本은 끊임없이 循環한다. 工業消費財 및 施設財의 形態로 資本은 끊임없이 流入되며 食糧 및 原料의 形態로 끊임없이 流出된다. 그러나 이러한 循環은 單純再生產的 關係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植民國에 있어서의 資本의 蓄積과 植民地에 있어서의 負債의 累積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事實은 植民地에서 收奪되는 剩餘價値가 植民地에서 蓄積되지 않고 끊임없이 本國으로 輸出되는 結果 植民地經濟의 發展에 따른 追加資本이 必要할 때마다 植民國에서 蓄積된 資本을 輸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에 基因한다. 이와같은 植民地經濟에 있어서의 負債의 累積의 增加는 植民國이 植民地에 가져다주는 最大의 文明的 膳物인 것이며 植民地民族의 生存條件이었던 것이다.

本稿에서는 植民地支配의 第二條件인 資本의 流出入關係를 國際收支面에서 把握해 보고자 한다. 第II節에서는 日本資本의 意味, 輸入經路, 朝鮮의 資金關係가 取扱될 것이며, 第III節에서는 貿易 및 貿易外收支에서 본 資本輸出入이 檢討될 것이고, 第IV節에서는 輸入된 日本資本의 投資形態가 分析되고, 第V節에서는 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輸出入을 總 評價하고자 한다.

II. 朝鮮經濟과 日本資本

1. 日本資本의 意味

京城商工會議所에서 發表한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投下現況』을 보면 1941年末

(4) 『日本資本主義發達史講座』 第三卷 pp. 22~23

現在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이 約 73 億圓에 達한다고 指摘되어있다. 이 경우에 日本資本이라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세가지 概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41 年末現在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人 日本人會社 및 日本人公共團體가 所有하는 資本額, 둘째 1910~1941 年間に 걸쳐 日本으로부터의 總資金受入에서 日本에로의 總資金支出을 差減한 國際收支計定上の 差額, 셋째 上記 兩者를 綜合한 概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의 概念에 따라 日本資本을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人, 日本人會社 및 日本人公共團體의 資本所有額으로 보면 1941 年末現在 朝鮮의 總資本중 日本에 歸屬하여야 할 資本總量이 얼마나 되는가는 明確해 질 것이나, 이 중에는 朝鮮에 進出한 日本資本의 朝鮮內에서의 蓄積部分等 日本으로부터 輸入되지 않는 資本이 많이 있는가하면, 日本으로부터 輸入되기는 하였으나 消費 其他減耗에 의하여 이미 消費되어 버린 것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 資本의 流出入關係와 輸入된 日本資本의 朝鮮에 있어서의 役割이라는 兩面에서 日本資本을 考察하려는 우리의 意圖와는 符合되지 않는다. 上述한 바와 같이 本稿에서는 朝鮮에 侵入한 日本資本이 朝鮮資本主義發達過程에 있어서 어떠한 役割을 하였으며, 또 그것이 資本輸出入面에서 어떠한 現象을 惹起시켰는가를 考察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單純히 一定時點에 있어서 朝鮮에 있었던 日本資本量과 그 形態 및 役割만으로는 충분한 考察이 不可能할 것이다.

둘째의 概念에 따라 1910~1941 年間に 걸쳐 日本으로부터의 總資金受入에서 日本에로의 總資金支出을 差減한 國際收支計定上の 差額을 가지고 朝鮮에 進出한 日本資本으로 보면 國際收支를 構成하는 各項目과 國際收支의 赤字를 招來케 한 諸原因을 分析함으로써 朝鮮의 資本流出入關係와 朝鮮資本主義發達の 各時期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役割等은 具體的으로 解明될 것이나, 後述하는 바와같은 國際收支統計의 未備 및 其他 朝鮮의 對日本國際收支란을 가지고는 日本資本의 流出入關係를 正確히 把握할 수 없는 諸要因을 차치하고라도 國際收支上の 資金移動은 實物資本의 移動이 없는 單純한 貨幣의 移動을 意味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이란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額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므로 國際收支上の 資金移動만을 가지고 日本資本이라고 보는 見解는 우리의 觀點에서 보면 充分치 못한 것이다. 우리는 日本資本流出入關係를 日本資本의 流出入과 輸入된 日本資本의 朝鮮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役割까지를 包括하여 考察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日本資本의 流出入을 單純히 國際收支上の 差額으로 본다면 1941 年 在朝鮮日本資本의 相當한 部分이 주로 日本貨幣資本의 流入에 의한 收奪의 原始資本蓄積過程에서 形成되

있다고 하는 重要한 歷史的 過程을 忘却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의 概念에 따라 日本資本의 意味를 國際收支面과 그것이 朝鮮에서 行한 歷史的 役割과를 綜合해서 보는 것이 適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特定時點에 있어서 日本人, 日本人會社 또는 日本人公共團體가 朝鮮內에서 所有하고 있는 資本을 日本資本이라고 본다면, 그 時點에 있어서 朝鮮의 總資本중 日本에 歸屬되는 資本이 얼마인가는 明確해 질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고 歷史적으로 어떻게 形成되었는가를 알 수 없게 되고 對日本國際收支差額을 가지고 日本資本으로 規定하면 그것이 朝鮮에서 段階적으로 어떠한 役割을 하였는가는 알 수 있지만, 國際收支統計 그 自體가 未備되어 있다는 點을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朝鮮에서 어떻게 自己를 擴大再生産시키는가는 전혀 알지못하게 되고 또 朝日間 資金移動은 반드시 實物資本의 移動을 隨伴하지 않는 單純한 貨幣資本의 移動에 不過한 것이 많았으므로 統計의 마술에 걸리기 쉽다. 그러므로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內容을 正確히 評價하기 위해서는 이 兩者를 綜合해서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資本輸出入을 惹起시키는 國際收支의 內容이 어떠한가? 그리고 輸入된 資本이 어떻게 朝鮮에서 擴大再生産되는가를 究明하지 않고는 日本資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明確히 把握하지 못할 것이다.

2. 日本資本의 輸入經路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經路를 통하여 행하여졌다. 첫째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 둘째 朝鮮總督府 및 地方團體의 公債募集에 의한 輸入, 셋째 特殊會社 銀行의 社債募集에 의한 輸入, 넷째 日本人會社資本의 進出, 다섯째 銀行會社의 借入金, 여섯째 其他 個人의 持參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

1)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 이 項目은 日本大藏省預金部에서 支出되는 「朝鮮經營費」 즉 朝鮮植民統治費이며, 植民初期에는 相當額에 達하였으나 末期에 갈수록 相對적으로 減少하고 있다. 1910~1931 年間に 395,942 千圓이 輸入되었다.

2) 朝鮮總督府 및 地方團體의 公債募集에 의한 輸入: 이 項目은 朝鮮總督府가 發行한 國債와 道·府·邑·面이 發行한 地方債로 構成되어있다. 國債는 대체로 日本政府의 大藏省預金부와 日本의 各 證券會社에 의하여 引受되었으며 地方債는 一部 日本政府의 大藏省預金부에서 引受된 것도 있으나 주로 朝鮮殖産銀行에 의하여 引受되고 朝鮮殖産銀行은 이것을 朝鮮內에서 소화시키든지 日本의 各 證券會社를 通하여 消化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5) 『朝鮮之研究』 pp. 278~279.

로 朝鮮總督府國債 및 朝鮮地方政府地方債가 全部 日本內에서 引受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國債는 대체로 日本에서, 地方債는 대체로 朝鮮에서 引受되었다. 1938年 이들 債券의 發行高를 보면 國債 593,646千圓, 道債 125,728千圓, 府債 35,384千圓, 邑面債 8,716千圓이며 合計 763,474千圓이었다. 이중 日本으로부터 資金流入을 惹起시킨 것은 593,646千圓의 國債였다고 볼 수 있다.

3) 特殊會社 銀行의 社債募集에 의한 輸入: 이 項目은 朝鮮殖產銀行이 發行한 殖產債券, 東洋拓殖株式會社가 發行한 拓殖債券, 朝鮮金融組合聯合會가 發行한 金融債券, 滿鮮拓殖會社가 發行한 拓殖債券, 日本產金振興會社가 發行한 債券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중 日本으로부터의 資本流入에 커다란 役割을 한 것은 朝鮮殖產銀行의 殖產債券과 東洋拓殖株式會社의 拓殖債券이었다. 朝鮮殖產銀行의 殖產債券은 그 發行高가 莫大할 뿐만 아니라 一部 朝鮮에서 消化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日本政府의 大藏省預金部와 日本의 各證券會社에 의하여 引受되었으며, 東洋拓殖株式會社의 拓殖債券도 그 發行高가 相當할 뿐만 아니라 一部 朝鮮殖產銀行 및 其他 朝鮮의 各機關에 의하여 引受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日本內에서 消化되었다. 朝鮮金融組合聯合會의 金融債券은 그 發行高도 적었을 뿐아니라 切半은 日本에서, 切半은 朝鮮에서 引受되었으며 그의 日本產金振興會社 및 滿鮮拓殖會社의 債券은 總發行額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朝鮮內의 機關이 아니었기 때문에 朝鮮內支店을 通하여 朝鮮에 供給되는 資金은 보잘것 없었다. 1938年末現在 이들 各機關의 社債 發行殘高를 보면 朝鮮殖產債券發行殘高 440,320千圓, 東洋拓殖社債發行殘高 376,840千圓, 朝鮮金融債券發行殘高 28,674千圓중 朝鮮內引受 12百萬圓, 日本引受 16,674千圓, 日本產金振興債券중 朝鮮內貸出額 54,220千圓, 滿鮮拓殖債券중 朝鮮內貸出額 26,550千圓으로 되어 있다.⁽⁷⁾

上述한 바와같이 日本資本의 流入을 주로 擔當하였던 機關은 朝鮮殖產銀行과 東洋拓殖株式會社이었으나, 東洋拓殖株式會社나 朝鮮殖產銀行의 發行債券중 朝鮮內引受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東拓의 貸出은 朝鮮에만 局限하지 않고 滿洲에까지 걸쳐 있었으므로 이들 債券發行殘高와 이들에 의한 日本資本流入高와는 一致하지 않는다.

4) 日本人會社資本의 進出: 이 項目은 日本會社資本의 對朝鮮直接投資이다. 日本資本의 對朝鮮直接投資는 朝鮮에 本店을 가진 本店會社의 投資와 日本에 本店을 갖고 朝鮮內支店會社를 통한 投資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38年末現在 朝鮮內本店을 가진 本店會社의 拂

(6) 朝鮮殖產銀行, 『殖銀調査月報』, 昭和 15年 6月號, p. 17.

(7) 前掲書, pp. 26~29.

入資本金중 日本人所有分은 955,803千圓이며 支店會社의 拂入資本金은 明白하지 않으나 朝鮮에 支店을 가진 支店會社의 總拂入資本金이 1,095百萬圓에 不遇한 것으로 보아 朝鮮에 進出한 資本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推測된다. 이들 本店會社와 支店會社를 通하여 日本으로부터 朝鮮에 얼마나 많은 資本이 流入되었는 가는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明白하지는 않으나 朝鮮殖産銀行의 「朝鮮會社事業成績調」(1938年末現在)를 보면 朝鮮本店會社의 年利益率은 21.4%, 配當率은 6.6%이었으므로 本店會社의 拂入資本金中에는 積立金에 의한 拂入이 많은 것으로 推測될 뿐 아니라 拂入資本金중에는 東拓의 資本等 朝鮮內資本에 의한 拂入이 많았으며 또 支店會社에 의한 日本資本의 進出도 朝鮮에 있어서 資本의 增加에 寄與한다기보다 資本果實의 流出에 급급하였다고 指摘되고 있으므로⁽⁸⁾ 이들에 의한 日本資本의 流入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5) 銀行會社의 借入金: 이 項目은 銀行會社의 借入金과 一般會社의 社債로 構成된다. 一般會社의 社債中에는 朝鮮空素肥料會社와 같이 34,600千圓의 巨額社債를 가지고 있는 會社도 있으나 全體的으로 얼마나 되는지 分明치 못하며 銀行會社의 借入金は 前掲「朝鮮會社事業成績調」에 拂入資本金의 109.9%로 推定되고 있으므로 1938年末現在 拂入資本金 1,081,380千圓의 朝鮮本店會社의 借入總額을 算出하면 1,188百萬圓이라는 巨額에 達한다. 이들 一般會社의 社債와 銀行會社의 借入金を 通하여 日本으로부터 資本이 얼마나 流入되었는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중에는 朝鮮內에서 調達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6) 其他 日本人持參金: 이 項目은 渡鮮日本人持參金인데 이에 의한 資本輸出은 매우 크나 그것에 의한 資本輸入은 그 額數가 매우 적다.

이들 외의 舊韓末에도 日本으로부터 資本流入이 있었다. 舊韓末에 國庫收入, 關稅 및 人參專賣收入을 擔保로 한 日本引受公債發行 및 日本으로부터의 借入金を 通하여 1904年으로부터 1910年에 이르기까지 總 43,994,982圓의 日本資本의 流入이 있었다.⁽⁹⁾

3. 朝鮮經濟의 資金關係

一國民經濟를 對外的 去來가 없는 封鎖經濟體制로 假定하면 一國의 資金事情은 預金과 貸出의 事情에 依存한다. 그러나 一國民經濟는 對外經濟와 孤立的인 것으로 存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日本植民支配下의 朝鮮은 日本資本主義의 外延의 擴大의 一環으로서 獨立的인 國民經濟를 形成하고 있지도 못하였으므로 日本과의 關係를 捨象한다면 그 觀察이 無意味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의 資金

(8) 前掲書, pp. 32~42.

(9) 『韓國財政施設要綱』 및 『第二次統監府統計年報』 參照.

關係를 올바르게 考察하려면 國際的인 資金關係⁽¹⁰⁾와 國內的인 資金關係를 아울러 考察하여야 한다.

國際的 資金關係는 國際收支關係이며 國際收支關係는 貿易去來, 貿易外去來 및 金移動에 의하여 形成된다. 朝鮮의 國際收支統計는 貿易統計를 除外하면 대체로 不備한 狀態였으므로 國際收支의 殘額이 바로 資本의 移動이라고 말할 수 없겠으나 國際收支 資料가 比較的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1931年을 基準으로 國際收支 計定을 통한 資本의 移動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10~1931年간의 朝鮮의 國際收支를 보면 貿易入超 640,666千圓, 貿易外受取超過 1,202,741千圓, 金銀輸出超過 167,014千圓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國際收支受取超過(貿易外受取超過+金輸出超過-貿易入超)는 729,089千圓이었다. 이것을 日本과 日本外地域으로 나누어보면 日本에 대해서는 同期間에 있어서 貿易出超 468,845千圓, 貿易外受取超過 1,114,892千圓, 金銀輸出超過 224,000千圓으로서 國際收支受取超過는 1,807,773千圓이며 日本外地域에 대하여서는 貿易入超 1,109,511千圓 貿易外受取超過 87,849千圓(1919~1931年) 金銀輸入超過 56,986千圓으로서 國際收支支拂超過는 1,078,648千圓이었다.⁽¹¹⁾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1910~1931年간 朝鮮의 國際收支는 日本에 대해서는 1,807,737千圓의 受取超過를 示現하고 日本外地域에 대해서는 1,078,648千圓의 支拂超過를 示現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729,089千圓의 受取超過를 示現하고 있다. 이는 端的으로 當時의 朝鮮國際收支가 日本에 대해서는 原料, 食料 및 金銀 등의 輸出과 長期資本輸入이라는 關係에 있었고 美·英·獨 等 先進資本主義國에 대해서는 資本財輸入關係에 있었다는 事情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30年以前 朝鮮의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對中國貿易은 輸出入이 同額이었고, 對日本貿易은 輸出 70%以上, 輸入 60%以上으로 대체

(10) 當時 日本經濟와 朝鮮經濟의 關係는 두개의 獨立한 國民經濟의 關係가 아니었으므로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 「國際的」이라는 用語를 使用할 수가 없겠으나 두개의 經濟가 獨立인 것으로 假想하고 本論을 展開하는 立場에서 이 用語를 使用한다.

(11) 昭和8年10月9日 朝鮮銀行調査部刊行『朝鮮에 있어서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關하여』p. 19를 보면 1910~1931年間に 朝鮮의 日本資本輸入이 1,807,493千圓으로 推算되어 있다. 이것은 同期間의 對日本貿易外 受取超過 1,114,892千圓, 對日本輸出超過 468,845千圓과 對日本金輸出超過 223,756千圓의 合計이다. 日帝植民地下 朝鮮의 資本輸出入關係를 이와같이 把握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由때문에 커다란 잘못으로 생각된다. 當時 國際收支統計의 不備를 考慮하지 않더라도 첫째 日帝下 朝鮮經濟는 日本資本의 支配下에 있었으므로 朝鮮에 있는 日本資本의 增減은 對日本去來 뿐만이 아니라 對日本外地域去來에 의하여 左右되었던 것이므로 朝鮮의 日本資本流出入關係를 對日本去來만에 局限시켜서 考察할 수는 없다. 둘째 國際收支의 殘額이 바로 資本의 輸出入關係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므로 國際收支를 통한 資本의 移動을 考察하려고 하던 國際收支를 構成하고 있는 各部項目의 意味를 檢討하여야 한다.

로 出超였으며, 對歐美貿易은 輸出 2%以下 輸入 15%以上이었다.⁽¹²⁾ 이와같이 朝鮮의 地域別 貿易構造는 위의 事實을 대체로 反映해주고 있다.

그러면 日本에로의 原料, 食糧 및 金銀의 輸出과 歐美先進資本主義國으로부터의 資本財輸入은 朝鮮貿易의 地域別 및 商品別 構造를 分析함으로써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면 日本으로부터의 長期資本輸入이란 어떤 것인가? 朝鮮의 對日本貿易外收支의 重要한 項目은 朝鮮總督府關係收入金, 朝鮮總督府의 公債募集에 의한 輸入,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의 社債募集에 의한 輸入, 日本人會社의 鮮內投資 및 銀行會社의 對日本借入金 等이다. 이것은 日本貨幣 즉 外換의 輸入으로서 一部는 貿易入超를 決濟하고 一部는 貨幣로서 鮮內에 購買力으로 남아 있었다.⁽¹³⁾ 이것이 銀行計定上에 預金과 더불어 資金의 供給으로 나타났다.

1938年 朝鮮의 銀行 및 其他 金融機關의 預金은 1,055,975千圓, 貸出은 1,548,089千圓이며 總資金供給은 1,832,863千圓, 總資本需要는 2,353,379千圓이었다. 資金의 供給은 預金 1,055,975千圓, 金融機關의 拂入資本金 및 積立金 203,233千圓, 債券 573,655千圓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資金의 需要는 貸出 1,548,089千圓 및 有價證券買入 805,290千圓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와같이 1938年의 朝鮮金融에 있어서 貸出에 대한 預金의 不足 492,114千圓은 朝鮮殖産銀行 및 東洋拓殖株式會社의 長期債導入으로 커버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1910~1931年間의 朝鮮貿易外收入超過 729,089千圓과 一定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朝鮮의 總資金供給과 總資金需要와의 差額은 520,496千圓이며 總資金需要중 有價證券에의 投資가 805,290千圓이다. 이와같이 資金供給에 비하여 資本需要가 많은 資金의 不足現象을 惹起시키는 것은 朝鮮各金融機關의 日本有價證券의 買入을 통한 朝鮮內資

것과 輸出超過 即 貿易輸出超過와 金輸出超過는 資本의 輸入이 아니고 도리어 資本의 輸出이다. 勿論 이들은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은 資本輸出은 아니며, 朝鮮에 投下된 日本資本의 元利金償還形態인 것이다. 넷째 國際收支가 資本輸出入을 全體的으로 包括하는 것이 아니었다.

(12) 拙稿『經濟論集』第IV卷 第4號所載「日本植民統治의 經濟的 遺産에 關한 研究」參照.

(13) 1911年 1월에 一旦 完成된 貨幣整理事業에 의하여 朝鮮의 貨幣制度는 日本의 그것과 전혀 同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日貨의 朝鮮內自由流通이 順調롭게 되었다. 日貨의 朝鮮內流通權은 이보다 훨씬 以前에 許諾된 것이지만 合邦以後 日貨가 直接 朝鮮內에서 流通된 量은 적었고, 朝鮮銀行券의 形態로 流通되었다. 貿易外收支를 通하여 朝鮮에 輸入된 日貨가 對外貿易收支赤字를 커버하는 外에 朝鮮에서 이러한 形態로 購買力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으나 朝鮮銀行券의 發行準備 및 金融機關의 貸出準備과 一定한 關係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貿易去來의 赤字를 커버하고도 남는 莫大한 量의 日本貨幣供給이 實物資本의 輸入이 없이 朝鮮內의 資本과 勞動을 支配하게 되고 自然資源을 資本化하는 原始蓄積의 過程을 밟았던 것만은 事實인 것 같다.

金の對日本流出에 문이며 總資金需要中에 包含된 有價證券 805,290 千圓중에서 朝鮮內有價證券의 買入도 一部 存在하기는 하나 대체로 日本有價證券에 대한 投資이었다.⁽¹⁴⁾

이와같이 朝鮮經濟의 資金關係는 日本經濟에 全的으로 依存하면서 日本으로부터의 資金供給, 日本에로의 資金流出이라는 日本經濟와의 끊임없는 資金交流關係에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指摘해두어야 할 것은 資金의 流入은 國際計定上에 나타나 있지마는 資金의 流出은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日本植民地統治期間에 있어서 貿易外收支에 관한 統計가 不備되어 있었기 때문에 朝鮮總督府公債 殖產債券 拓殖債券等에 의한 資金流入은 該當機關의 記錄을 보면 곧 알 수 있는 性質의 것이지만 資金流出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貿易外收支計定上에서 많이 누락되어 있었던 데 基因하는 것이다.

日本資金의 供給과 朝鮮資金의 不足과는 同一現象이며 日本資金이 朝鮮內에 流入되면 流入될 수록 朝鮮의 資金은 枯渴되었던 것이다.

III. 貿易 및 貿易外收支에서 본 日本資本

前述한 바와같이 國際收支는 貿易收支, 貿易外收支 및 金銀의 移動으로 構成된다. 開發途上의 國家는 開發初期에 대체로 開發을 위한 資本의 導入과 輸出資源의 缺乏으로 貿易 및 貿易外收支가 入超이며, 一旦 開發을 成就하고 나면 資本의 辨濟를 위하여 貿易 및 貿易外收支가 다함께 出超가 된다고 하나 이는 假想的인 理想郷일 것이며 現實的인 歷史發展過程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歷史上 先進國과 後進國의 關係가 서로의 主權을 尊重하는 對等한 關係에서 出發하는 일은 드물었다. 대체로 植民國과 植民地라는 優越과 從屬의 關係로부터 出發하였으며 植民國에 대한 要求도 그 나라의 具體的인 條件과 歷史發展段階에 따라 相異하였다. 예를 들면 「스페인」帝國과 中南美의 關係처럼 中南美의 開發은 커녕 土人에 대한 野獸的인 虐殺과 掠奪을 일삼는 경우도 있으며 英國과 印度의 關係처럼 開發도 채 되기 전에 鴉片과 麻藥(罈과 阿片)을 팔아서 까지도 英國資本의 利潤을 保障해 주기 위하여 심한 資本流出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英國과 美國의 關係처럼 美國民의 獨立鬭爭으로 말미암아 投資元本도 回收하지 못하고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말하자면 植民國이 被植民國에 資本輸出을 하는 경우에 植民地에서 보다 값싼 原料와 勞動을 利用하여 보다 높은 利潤을 얻으며 植民地經濟를 植民國의 利害關係에 따라 改編從屬시키며, 植民地民族資本家の 成長을 妨害한다는 것과 植民地에서 畜積된 剩餘價値를

(14) 鈴木武雄, 『朝鮮金融論十講』 pp. 108~112.

항상 本國에 移送한다는 것은 一般的 法則이나 어느 一定期間에 植民國이 植民地에 投資한 것보다 보다 많은 것을 本國으로 移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劃一的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具體的인 問題는 具體的인 條件에 따라 解明되어야 한다.

1910年 韓日合邦以後 1945年 8·15 解放에 이르기까지 朝鮮貿易은 1924年 및 1925年 兩年間に 걸친 21,065千圓의 出超를 除外하고는 繼續 入超를 示現하였고, 貿易外收支는 資料不備로 每年度의 事情은 잘 알 수 없으나⁽¹⁵⁾ 資料가 있는 해에는 대체로 入超를 示現하고 있으며 金銀移動은 恒常 出超로 나타났다. 이 三者를 綜合해 보면 金銀의 出超는 貿易의 入超를 커버하기에 充分하지 못하였고 貿易外收支에 있어서의 入超는 貿易入超를 커버하는 程度가 아니고 그 몇배에 達하고 있다. 만약 이들 統計가 信憑性을 갖는다면 日帝植民統治 36年間に 持續的인 資本의 輸入이 있었다고 結論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기야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歷史的 展開過程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日帝下의 朝鮮植民史를 段階別로 나누어 보면 1910~1918年까지를 日本의 國家資本 및 商業高利貸資本에 의한 強力的 收奪過程 即 日本資本의 原始資本蓄積期로 볼 수 있고, 1919~1930年까지를 食料 및 原料의 收奪期로 볼 수 있으며 1931~1945年까지를 日本金融獨占資本의 進出期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第1期에 있어서는 朝鮮의 土地 및 鑛山 等 自然資源의 支配와 植民地의 經濟土臺를 構築하기 爲한 貨幣·金融機關, 公共建物, 鐵道, 道路 및 港灣施設 等 社會間接資本의 創設을 위하여 第3期에 있어서는 民間金融獨占財閥의 直接的인 進出과 軍需産業의 創設을 위하여 日本資本이 朝鮮으로 輸入되는 時期이며 이 兩期間이 朝鮮被植民史의 3分の 2를 차지하고 있음에 反하여 日本資本輸入은 있었다 하더라도 朝鮮經濟의 收奪에 의한 資本輸出이 甚하였다고 볼 수 있는 第2期은 朝鮮被植民史의 3分の 1에 不過한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貿易面에서도 反映되고 있다. 日帝植民地下的 朝鮮貿易은 어느 時期를 不問하고 入超를 나타내고 있지만 第1期과 第3期에는 輸出入貿易에 대한 入超의 比率도 높았고 대체로 對日本貿易까지도 入超를 示現하고 있음에 反하여 第2期에는 1924年 및 1925年의 出超와 더불어 對日本貿易에 있어서는 대체로 出超를 示現하였다. 이렇게 보면 朝鮮은 被植民期間의 資本移動의 側面에서 볼 때 日本으로 收奪된 것보다 많은 量의 資本을 輸入하였다는 結論이 自然的으로 導出된다. 그러나 問題는 이렇게 簡單히 끝맺어질 수는 없다. 國際收支統計 및 貿易統計에 의하여 이 期間의 對日本資本輸

(15) 鈴木正文, 『朝鮮經濟의 現段階』 p. 164 를 보면 1934年以後는 貿易外收支가 發表되지 않았다고 한다.

出入關係를 完全히 評價할 수 없는 理由는 첫째 國際收支統計, 그 중에서도 貿易外收支統計는 全히 信憑性이 없으며 둘째 漁獲物海上引渡 特殊輸出入 및 個人的 土產物輸出 等 貿易統計에 反映되지 않은 商品의 輸出入이 많았으며 셋째 貿易入超를 커버하고도 남는 外換의 受入, 즉 貨幣形態로 的 資本輸入이 많았는데 이것은 實物資本의 輸入이 없었기 때문에 眞正한 資本輸入이라고 볼 수 없고 넷째 1941 年末現在 日本資料에 의하면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輸入額과 朝鮮內에서 日本人에 의하여 蓄積된 資本이 73 億圓으로 評價되어 있는데 反하여 1945 年 8 月 15 日現在 朝鮮內 金融機關 및 民間의 手中에 남아있는 日本의 有價證券 및 日銀券이 105 億에 達하였다는 點等이다. 이들에 對해서는 다음 各項目에서 說明하기로 한다.

1. 貿易에서 本 資本輸出入

日本殖民地時代に 있어서 朝鮮貿易統計는 相當히 正確하다고 當時 貿易統計作成에 從事하였던 사람들이나 日人經濟學者들에 의하여 認定되고 있었다. 그러나 現在 우리가 그 當時의 貿易統計를 綿密히 檢討하여 보면 1936 年以後에는 各種 情報發表의 統制가 甚하였기 때문에 1936 年以後의 貿易統計는 대체로 信憑性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35 年以前에도 朝鮮貿易統計의 性格上 特殊輸出入 및 漁獲物海上去來 等은 貿易統計에서 除外되고 있었으므로 貿易統計의 正確性을 이야기 할 때는 稅關에서 捕捉되는 貿易去來의 合計過程이 正確하였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朝鮮의 對外去來는 貿易統計에 나타난 貿易去來外에 特殊輸出入 및 漁獲物海上去來 等 貿易統計에 나타나지 않은 去來가 많았으며 이들은 많은 輸出超過를 示現하고 있었다.⁽¹⁶⁾

이러한 點을 勘案하면 貿易統計에 나타나 있는 入超를 全部 資本輸入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며 오히려 이들을 合算한 貿易은 出超를 示現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貿易統計에 나타나지 않은 對外去來에 대한 資料는 거의 全無한 形便이므로 朝鮮의 對外去來는 貿易統計에 나타나 있는 것만이라고 假定을 하고 貿易을 통한 資本의 流出入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資本移動과 貿易收支와의 關係를 보면 資本輸入이 資本輸出을 超過하는 境遇 貿易收支는 入超로 나타나며 資本輸出이 資本收入을 超過하는 境遇 貿易收支는 出超로 나타난다. 日本殖民地時代의 朝鮮貿易收支는 第 1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4 年 및 1925 年의 21,065 千圓의 出超를 除外하고 나면 每年 入超를 示現하고 있으므로 資本移動關係에 있어서는

(16) 朝鮮銀行調查部,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資本의 流出入에 關하여』 p.13 및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參照.

대체로 資本을 輸入하고 있었다. 이것을 朝鮮被植民史의 發展段階別로 보면 1910~1918 年の 第 1 段階에서는 221,146 千圓, 1919~1930 年の 第 2 段階에서는 410,879 千圓, 1931~

< 第 1 表 >

朝鮮輸出入超의 推移

(單位: 千圓)

年 度	日 本 外 地 域	日 本	合 計
1910	- 9,899	- 9,969	- 19,869
1911	- 14,513	- 20,718	- 35,231
1912	- 20,743	- 25,387	- 46,130
1913	- 25,697	- 15,115	- 40,812
1914	- 18,199	- 10,460	- 28,659
1915	- 8,840	- 634	- 9,474
1916	- 7,820	- 9,495	- 17,316
1917	- 11,163	- 7,970	- 19,133
1918	- 24,453	+ 19,931	- 4,522
小 計	-141,327	- 79,817	-221,146
1919	- 76,060	+ 14,931	- 61,129
1920	- 78,536	+ 26,269	- 52,266
1921	- 55,041	+ 40,910	- 14,131
1922	- 78,308	+ 37,668	- 40,640
1923	- 77,935	+ 73,810	- 4,125
1924	- 75,397	+ 94,843	+ 19,446
1925	- 81,046	+ 82,665	- 1,619
1926	- 99,155	+ 89,940	- 9,215
1927	- 85,810	+ 61,317	- 24,492
1928	- 86,002	- 37,989	- 48,012
1929	- 71,995	- 5,435	- 77,429
1930	- 63,002	- 37,499	-100,502
小 計	-928,287	+517,408	-410,879
1931	- 39,924	+ 31,257	- 8,668
1932	- 32,476	+ 23,474	- 9,002
1933	- 11,595	- 23,963	- 35,558
1934	- 21,853	- 31,929	- 53,782
1935	- 35,687	- 72,920	-108,607
1936	- 39,233	-129,871	-169,104
1937	- 15,041	-162,969	-178,010
1938	+ 34,484	-210,806	-176,322
1939	+110,880	-492,534	-381,654
小 計	- 50,445	-1,070,261	-1,120,707
合 計	-1,120,059	-632,670	-1,752,732

資料: 『朝鮮貿易年表』(1937 年度), p. 739

1939年의 第3段階에서는 1,120,707千圓의 輸入超過를 各各 示現하였다. 이를 日本과 日本外地域으로 나누어 보면 日本에 대해서는 第1段階와 第3段階에서는 各各 79,817千圓 및 1,070,261千圓의 輸入超過를 示現하고 第2段階에서는 517,408千圓의 輸出超過를 示現하였으며 日本外地域에 대해서는 第1段階, 第2段階 및 第3段階에서 各各 141,327千圓, 928,287千圓 및 50,445千圓의 輸入超過를 示現하였다. 朝鮮貿易은 1910~1939年間に 日本地域에 대해서는 632,670千圓, 日本外地域에 대해서는 1,120,059千圓 合計 1,752,732千圓의 輸入超過를 示現하고 있다.

이들 統計에 依하면 朝鮮은 日本에서 보다 日本外地域에서 보다 많은 資本을 輸入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當時 朝鮮貿易은*日本資本主義에 의하여 專擔되고 있었기 때문에 輸入地域과는 關係없이 이들은 全部 日本資本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들 資本輸入을 段階別로 나누어 그 特性을 살펴보면 各 段階에서 모두 資本輸入을 示現하고 있으나 第1段階와 第3段階에서는 資本輸入의이었고 第2段階에서는 資本輸出의이었다. 勿論 第2段階에 있어서의 輸入超過絕對額은 第1段階의 그것보다 많으므로 第2段階에 있어서 第1段階에 있어서보다 많은 資本이 輸入되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各 段階의 輸入超過額의 輸出入總額에 대한 比率(年平均)을 보면 第1段階 18.9% 第2段階 5.6%, 第3段階 9.9%로서 第2段階가 가장 낮다. 그리고 輸入의 地域構造를 보더라도 第1段階 및 第2段階에서는 輸出入이 全地域에 대하여 모두 輸入超過를 나타내고 있으나 第2段階에서는 日本에 대해서는 輸出超過, 日本外地域에 대해서는 輸入超過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第2期에 있어서 甚한 資本輸出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朝鮮에 있어서의 經濟動向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第1期은 朝鮮被植民史의 初期이다. 朝鮮植民史는 實質적으로 露日戰爭이 끝난 1905년부터 시작되지만 植民地의 經濟基礎를 本格的으로 創設하기 始作한 것은 1910年以後이다. 一般적으로 帝國主義下의 植民初期에는 植民國으로부터 植民地에 資本이 移動하기 마련이다. 初期에 植民地에로 移動하는 資本은 植民地의 資本主義化 즉 帝國主義에 從屬하는 植民地의 經濟機構를 創設하기 위하여 必要한 最少의 費用인 것이며 이를 通하여 近代의 法律制度, 近代의 貨幣金融機構, 鐵道, 道路, 港灣 等 社會間接資本이 마련된다. 勿論 이와 같은 植民地의 資本主義를 樹立하는 데는 많은 資本이 必要한 것은 아니다. 한층의 누룩이 한 동이의 술을 빚어내듯이 植民地의 資本主義化는 帝國主義의 原始資本蓄積過程으로서 最少의 資本을 가지고 國家的 暴力과 商人·高利貸의 欺騙과 掠奪을 通하여 巨萬의 自然資源을 資本化한다. 이러한 過程은 朝鮮에서도 同一하게 遂行되었으며 많은 적든 日本資

본이 輸入되었다.

그러나 第2期에 있어서는 이러한 뚜렷한 事業의 進行도 없었고 生産資本인 會社資本의 進出도 活潑하지 못하였고 反面에 米 및 豆를 中心으로 하는 食糧과 鑛産物을 中心으로 하는 工業原料의 輸出은 本格化하기 시작하였다.⁽¹⁷⁾ 그러므로 이 期間에 있어서는 비록 貿易統計에서는 入超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資本이 日本으로 輸出한 것으로 斷定할 수 있다. 그리고 第3期에는 食料 및 原料의 輸出도 많았지만 日本獨占産業 및 軍需工業의 巨大한 進出이 있었기 때문에 資本輸入的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上述한 資本輸入의 特性은 輸出入商品內容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輸入商品地域構造를 보면 對日本依存率이 壓到的이나 日本을 除外하면 第1期에는 歐美先進資本主義諸國에 크게 依存하고 第2期에는 關滿支 等 後進地域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第2表〉 輸入商品地域構造 (單位：%)

年 度	輸			入		
	日 本	關 滿 支	歐 美 加	其 他		
1912	60.0	9.3	28.4	2.3		
1919	64.7	21.3	12.1	2.3		
1929	74.2	17.4	4.3	3.7		
1935	84.8	10.5	1.9	1.8		
1939	88.8	6.5	2.0	1.6		

資料：『朝鮮貿易年表』 및 『朝鮮輸出入三年對照表』

註：① 關滿支 및 歐美加는 關東州, 滿洲, 支那와 歐羅巴, 美國, 「캐나다」의 略字임.

② 地域別 輸入構造의 比率合計가 100%에 未達하는 것은 保稅倉庫에 들어가는 輸入品의 輸出地가 不明하기 때문이다.

日本經濟는 早期獨占資本主義의 成立으로 1905年부터 帝國主義段階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1930年代에까지 植民地 및 後屬國에 自己資本을 積極的으로 輸出할 餘力이 없었고 이들 地域에 대한 資本輸出은 대체로 先進諸國에서의 起債에 依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先進諸國에 대한 輸入依存도가 컸던 第1段階에서는 資本輸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後進地域에 대한 輸入依存도가 컸던 第2段階에서는 資本輸入이 적었고 第3段階에서는 日本自體資本의 輸入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貿易收支를 通하여 資本의 移動을 考察하여 보면 第1段階에서는 資本의 輸入은 있었으나 그 量은 많지 않았으며 第2段階에서는 資本이 輸出되었을 것으로 推測할 수

(17) 拙稿, 『經濟論集』 第IV卷 第4號所載「日本植民統治의 經濟的 遺産에 關한 研究」參照.

있을 것이며 第3段階에서는 日本資本이 積極적으로 進出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金銀移動에서 본 資本輸出入

金은 國際收支決濟의 最終的인 手段이며 資本輸入에 대한 元利金償還의 手段이 되기도 한다. 重商主義時代에는 輸出超過의 實現으로 金流入을 貿易政策의 基本으로 하였으나 先進諸國이 後進諸國으로부터 恒常 金銀을 收奪해 갔던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資本主義發展의 初期에 先進諸國이 金本位制度를 樹立하기 위하여 必要한 金銀을 後進諸地域, 주로 美洲大陸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莫大한 金銀을 收奪해 간 것은 事實이나 一國 金本位制度가 樹立된 以後에는 各國의 特殊事情에 따라 金銀을 輸出하기도 하고 輸入하기도 하였다.⁽¹⁸⁾

日帝植民地時代에 있어서 朝鮮의 金銀移動을 보면 第3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 804,677千圓, 輸入 192,371千圓, 輸出超過 612,386千圓이었다. 이것을 朝鮮經濟發展의 段階別로 보면 第1段階에서는 輸出 97,528千圓, 輸入 11,944千圓, 輸出超過 85,584千圓, 第2段階에서는 輸出 105,732千圓, 輸入 38,222千圓, 輸出超過 67,510千圓, 第3段階에서는 輸出 601,497千圓, 輸入 142,205千圓, 輸出超過 459,292千圓이었다.

이와같이 朝鮮經濟는 甚한 金銀流出을 經驗하였으며 日本經濟는 朝鮮經濟로 부터 莫大한 量의 金銀輸入을 要求하였다. 日本帝國主義가 이러한 莫大한 量의 金銀輸入을 要求하게 된 理由는 1897년에 樹立된 日本金本位制度의 充實을 위하여 大量의 金獲得을 要求하였으나 이를 充足하기에는 日本內의 金生産이 너무나 不足하였고 또 日本은 對先進國貿易에서는 莫大한 輸入超過를 示現하였으므로 이의 決濟를 위한 金이 必要하였다.⁽¹⁹⁾ 말하자면 朝鮮에 있어서 植民地的 資本主義를 建設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였던 先進諸國으로부터의 資本財輸入代金は 朝鮮으로부터의 金銀流出에 의하여 決濟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輸入超過와 金銀輸出超過의 關係로 보면 第4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超過額에서 金銀輸出超過額을 빼면 貿易 플러스 金銀輸出入收支가 플러스가 되는 해가 많으며 全期間의 合計에 있어서 輸入超過에서 金銀輸出超過를 뺀 殘額은 1,140,346千圓이 된다. 即 貿易 및 金移動을 통한 資本輸入은 1,140,346千圓으로 推算된다. 그러나 이 數値는 單純히 公式資料에 나타난 數値에 不過하다. 當時의 金銀輸出入統計는 아주 엉터리였기 때문에⁽²⁰⁾ 實際의 金銀輸출量은 이것보다 큰 數値일 것이므로 貿易 및 金移動에서 본 資本

(18) 一橋大學經濟學研究所編, 『經濟研究』 第17卷 第2號, p. 108에 의하면 印度는 英國의 植民統治期間에 莫大한 量의 金을 輸入하였다.

(19) 『日本貿易精覽』, 統計表, pp. 2~3.

(20) 金銀輸出入統計가 아주 信憑性이 없다는 것은 여러 資料에서 指摘되고 있다. 植民地時代以前의 金銀輸出入統計를 評하여 『韓國誌』에서는 金銀輸出統計는 實輸出의 3分の1내지 2分の1에도 未達

〈第3表〉

朝鮮金銀輸出入의 推移

(單位：千圓)

年 度	輸 出	輸 入	輸 出 超 過
1910	9,200	1,876	7,324
1911	12,857	4,739	8,118
1912	10,124	1,473	8,652
1913	10,944	202	10,742
1914	10,825	312	10,512
1915	11,764	833	10,931
1916	16,121	1,671	14,450
1917	9,669	467	9,202
1918	6,024	371	5,653
小 計	97,528	11,944	85,584
1919	4,419	1,639	2,780
1920	23,843	16,289	4,554
1921	7,307	2,540	4,830
1922	4,189	1,150	3,039
1923	6,593	1,058	5,535
1924	5,737	1,571	4,145
1925	4,358	810	3,548
1929	7,452	469	6,982
1927	5,263	521	4,742
1928	3,670	538	3,132
1929	6,097	886	5,211
1930	26,804	11,731	15,072
小 計	105,732	38,222	67,510
1931	39,548	21,957	17,591
1932	28,315	10,604	17,711
1933	24,395	3,848	20,547
1934	36,350	402	35,948
1935	210,593	73,218	137,375
1936	65,574	8,044	57,530
1937	65,574	8,044	57,530
1938	65,574	8,044	57,530
1939	65,574	8,044	57,530
小 計	601,497	142,205	459,292
合 計	804,677	192,371	612,386

註：1937~1939年까지는 統計未備로 1936年度分을 그대로 適用함.

資料：『朝鮮貿易年表』 및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植民地時代의 金銀輸出入統計를 評하여 鈴木正文著, 『朝鮮經濟의 現段階』 p.176 에서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本來 金銀과 같은 것은 正確한 移動數字를 提示하기가 至難하며 昭和10年과 같은 右數字로 보아 滿洲國으로부터의 密輸入에 의한 銀이 大部分을

<第4表>

金輸出에 의한 輸出超過決濟表

(單位:千圓)

年 度	輸入超過(A)	金銀輸出超過(B)	(A)+(B)
1910	-19,869	7,324	-12,545
1911	-35,231	8,118	-27,113
1912	-46,130	8,652	-37,478
1913	-40,812	10,742	-30,070
1914	-28,659	10,512	-18,147
1915	-9,474	10,931	+1,457
1916	-17,316	14,450	-2,860
1917	-19,133	9,202	-9,931
1918	-4,522	5,653	+1,131
1919	-61,129	2,780	-58,349
1920	-52,266	4,554	-47,712
1921	-14,131	4,830	-9,301
1922	-40,640	3,039	-37,601
1923	-4,125	5,535	+1,410
1924	+19,446	4,145	+23,591
1925	+1,619	3,548	+5,167
1926	-9,215	6,982	-2,233
1927	-24,492	4,742	-19,750
1928	-48,012	3,132	-44,880
1929	-77,429	5,211	-72,218
1930	-100,502	15,072	-85,430
1931	-8,668	17,591	+8,923
1932	-9,002	17,711	+8,709
1933	-35,558	20,547	-15,011
1934	-53,782	35,948	-17,834
1935	-108,607	137,375	+28,768
1936	-169,104	57,530	-111,574
1937	-178,010	57,530	-121,080
1938	-176,322	57,530	-118,792
1939	-381,654	57,530	-324,124
合 計	-1,752,732	612,386	1,140,346

資料: 第1表과 第3表에서 作成.

輸入額은 이것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輸出超過를 示現하였을런지 모른다.

〔筆者 서울대학교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研究員
서울대학교商科大學專任講師〕

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同時에 또 朝鮮에 있어서 產出된 金은 右輸出表에 나타나지 않고 密輸出된 것도 莫大한 額에 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昭和11년에 全鮮에서 檢擧된 金密輸出件數가 35件, 密輸出된 金이 1,776圓에 達하고 있는 事實을 미루어 보아 判明되지 않은 密輸도 加算하면 金移動統計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額에 達할 것인가를 窺知할 수 있다. 金銀移動의 表面的 數字와 같은 것은 이와같이 實際와 甚히 相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朝鮮에 있어서는 金銀輸出超過額을 가지고 受取計定의 超過額이라고 볼 수는 없다.]